

2009. 22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9. 9. 9 발행인 : 한홍순





싣는 순서



1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2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5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
3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7
4 교황님 말씀	8



알 릴

- ◎ 최양업 신부 서품 160 주년과 사제의 해를 기념하는 음악회 ‘이 땅이 하느님을 노래하다’가 오는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서울명동대성당에서 개최됩니다.
- ◎ 제4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오는 11월 20일(금)~21 일(토)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에서 열립니다.



◆ 청주교구 꽃동네에서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1박 2일 동안 청주교구 꽃동네 영성원에서 올해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한 ‘사제의 해’를 맞아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함께하기로 하고, 각 교구별로 정해진 기도가 없는 경우 새로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14개 교구 회장단과 상임단체장, 한국평협 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상임위원회에는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가 집전하는 개막미사에 이어 장 주교의 ‘최양업 신부’를 주제로 한 특강, 청주교구 소개 시간과 상임위원회, 한홍순 회장의 ‘교회의 선교사명’ 특강, 배티성지 순례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미사 강론에서 장봉훈 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조 요셉에게 섭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각자 하나하나에게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다른 이를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청하자”며 상임위원회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장 주교는 한국천주교회가 지난 6월 3일 125 명의 시복시성 대상자를 시복시성절차법에 따라 예비심사를 마치고 교황청 시성성에 서류를 제출했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125 명의 대상자 가운데 유일한 증거자인 최양업 신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최 신부의 유업을 이어서 한국교회를 넘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열정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교구평협이 바으로 해를 마치면서 치렀던 행사 등 소식을 나누고, 특히 현재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국선언을 교회 내에서는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사제의 해’에 평신도들이 사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급하자고 결의했다.

둘째 날 ‘교회의 선교사명’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한홍순 회장은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Redemptoris Missio)」의 문헌을 차례로 해설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사명은 선교”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러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영성을 갖고 우리 사회 안에서 거룩한 생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3차 상임위원회는 오는 9월 11~12일, 제주교구 이시돌회관에서 개최된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성 최경환 가정교실 수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올해 교구장의 사목방침에 따라 ‘신앙의 터전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정 안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성 최경환 가정교실’을 마련했다.

‘성 최경환 가정교실’은 참 신앙인이요, 모범적인 회장으로서, 무엇보다도 박해 가운데에서도 최양업 신부를 훌륭한 사제로 키워낸 참 부모로서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간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공덕에 힘입어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성인의 삶의 모범을 잘 따르자는 의미로 불인 이름이며, 지난 6월 13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실시하여 지난 7월 18일 29명의 참가자 가운데 27명이 수료했다.

나와 가족관계, 원가족, 아버지의 정체성, 나의 성격 등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아버지, 남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에는 아내가 함께 참가하여 남성으로서의 남편을 새롭게 발견하고,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엄숙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서울평협에서는 이날 참석한 수강생과 아내들에게 교육을 평가하는 설문을 받았는데 수강생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아



내들에게 받은 설문 결과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를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화해와 나눔과 증거의 축제’ 발대식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오는 9월 19일 한국 순교자 103 위의 시성 25주년을 기념하는 ‘화해와 나눔과 증거의 축제’에 주관단체로 참여하여 지난 1984년 여의도에서 가졌던 시성식의 영광을 재현하게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몬시뇰)가 주최하여 실시하게 되는 이번 축제는 25년 전 시성식이 열렸던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오전 11시부터 ▲화해와 나눔의 축제(현 혈, 장기기증 접수, 문화공연) ▲증거의 축제(103 위 시성 기념표식 축복식) ▲103 위 시성 25주년 기념 장엄미사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행사 전반을 준비하고 실행하게 될 행사위원회의 발대식을 지난 8월 13일 서울 명동 고스트홀 소성당에서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화해와 나눔과 증거의 축제 행사위원회 대회장 정진석 추기경(서울대교구장)이 행사위원회에 최창화 몬시뇰, 부위원장에 한홍순 회장(서울평협 회장)과 김용태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본부장에 최홍준(순교자현양회 회장) 등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행사 실행을 위한 부서를 ‘기념행사부’, ‘문화행사부’, ‘나눔행사부’, ‘기획조정실’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 미사를 주례한 염수정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는 “25주년의 의미는 103 위 성인들의 삶의 모범을 본받고 그분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참석한 위원들을 격려했다.





축제명인 ‘화해와 나눔과 증거’는 1984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방한일정의 세 가지 테마인 화해의 날, 나눔의 날, 증거의 날을 묵상하고,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과 얼을 이어받아 온 누리에 빛을 밝히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단체 소식

서울가톨릭미술가회

-2009 일일 피정

2009년 8월 19일(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목실 성당에서 서울 가톨릭미술가회(회장 이광미, 담당 지영현 신부)가 연례 피정을 열었다.

이번 피정은 1부 지영현 신부의 말씀의 전례를 시작으로 ‘생명- 그 신비함’에 대한 강의, 2부 허영엽 신부의 ‘하느님의 선물- 생명’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조규만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파견미사의 강론에서 조주교는 “우리가 꽃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꽃이 있으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느냐? 아름다운 작품으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50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신입회원들의 소개와 인사를 하며 내년도 정기전의 주제에 대한 논의와 담소를 나누며 피정을 마무리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하반기 총회장 연수 및 교구장과의 만남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에서는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아론의 집에서 ‘2009년 하반기 총회장 연수 및 교구장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본당 총회장들과 평협 임원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 첫 날에는 말씀 전례, 6개 대리구별 모둠회의, 교구장 주교의 사회교리 시간, 교구장 주교와 함께 기념 촬영(대리구별), 친교의 시간이 있었으며, 둘째 날은 수원교구 성음악의 비전과 조직(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장 현정수 신부), 사제양성과 신학교 발전계획(수원가톨릭대학 총장 방상만 신부), 수원교구 건설본부의 업무현황(교구 건설본부장 최중인 신부)에 대해 듣는 한편, 교구장과의 만남과 파견미사로 마무리됐다. 특히 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사회교리 시간에는 30여 명의 신자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또 평협에서는 평협 창립 40주년과 함께 이용훈 주교의 교구장 취임 후 본당 총회장들과의 만남이 처음 이뤄진 것을 기념하며 축하의 의미로 이용훈 주교에게 예수성심 이콘화를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첫날 이뤄진 6개 대리구별 모둠회의에서는 대리구별 본당에 따른 현황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성전 건립·증축·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교구 건설본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사회교리시간에 이용훈 주교는 “신자들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



하여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비판을 함으로서 정치와 종교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존엄사에 대해서는 “의사와 기자들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생명경시풍조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교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타살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마지막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서 “본당을 이끌어가는 데 큰 뜻을 하시는 데에 감사드린다”고 전한 이용훈 주교는 “총회장은 본당 신부들이 사목하면서 놓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본당 사목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라고 격려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6대 담당사제 박성열(토마스) 신부 부임



지난 8월 27일 광주대교구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박성열 토마스 신부가 교구 사목국장으로 전보돼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여성위원회의 담당사제를 맡게 되었다. 평협과 여성위원회 임원들은 9월 1일 상견례 후 업무보고를 했다.

교회법관련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 교육



교구 사목국과 평협은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을 대상으로 본당 사목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회법과 영성강좌를 8월 9일과 16일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사목협의회 운영관련 교회법은 이정주 신부가 영성강좌는 김종주 신부가 강의했다.

단체 소식

성모님께 대한 봉헌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회장 김재중, 담당 한덕수 신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6주간 성모님께 봉헌 준비를 위한 성모신심세미나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로알고 준비를 해온 180 여 명의 회원들은 이날 봉헌미사를 통해 온전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했다. 오는 10월 13일에는 “파티마 성모발현 92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광주대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에서 준비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레지오 마리애 1단계교육(제3기)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에서는 레지오 마리애 1단계 교육(제3기)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1단계 교육에는 136 명이 참석하여 지난 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단계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병덕 신부는 개회미사에 이어 ‘구세사’ 강의를 시대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여 수강자들이 구세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조재형 신부(서울대교구 시흥동성당 주임)는 ‘교회론’



강의를 통해 “우리는 7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영혼에 때가 끼었을 때는 고해성사로 새롭게 하느님과 은총 관계로 회복된다. 말씀과 성체성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다”고 했다.

손희송 신부는 ‘성사론’ 강의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이 성사이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고 말했다.

김길수 교수는 ‘순교자 영성’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훌륭한 점을 받아들이고 익히고 실천에 옮겨야하며 피로써 지킨 신앙을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전교에 노력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민병덕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레지오 마리애 1단계교육을 계기로 ‘성무일도 기도’와 ‘매일미사’ 참여를

생활화하는 성숙된 단원이 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 교구 간부연수회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단장 전재옥, 담당 황양주 신부),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단장 이해도, 담당 하성호 신부)가 함께 구성한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의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는 7월 30일~31일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지도신부와 전국 교구 4간부들, 그리고 편집장과 직원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간 「레지오 마리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교구 평의회 간부연수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 민병덕 신부는 개회미사에 이은 특강에서 종교개혁에 대항하여 열린 트렌트 공의회(1545~1563) 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성모님을 따른다는 레지오 단원들이 성무일도와 미사참례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모님과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룹토의에서는 변화된 월간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과 더불어 세나뚜스 협의회 이름으로 1년씩 윤번제로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의견 수렴 했다. 이에 따라 9월 총회를 앞두고 8월 말까지 각 교구별로 현 회칙에 대한 수정안과 의장 선출단 범위에 대한 의견을 받아 상임위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둘째 날, 성지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수원 북수동성당을 방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신심이 녹아있는, 서벽에 십자가 돌을 박아놓은 방화수류정 등 수원성지를 순례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흘 전 8월 27일 우리는 전례력으로 성녀 모니카 축일을 지냈습니다. 모니카 성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로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모범이요 주보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역사 상 가장 많이 읽힌 명저의 하나인 아드님의 자서전「고백록」이 많은 것을 전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었고 어머니에게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으며, 이 때 배운 원칙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 아들이 신앙으로 되돌아와 세례 받는 것을 보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거룩한 엄마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타가스테의 주교는 모니카에게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성 아우구스티노는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동안 오스티아의 한 조용한 집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눈 영적 대화는 커다란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녀 모니카는 자신의 이 아들에게는 이미 "한 어머니 이상으로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아들의 회개였는데 이제 그 아들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봉헌 생활까

지 하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원 없이 죽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장례 때문에 애쓰지 말고 어디에 가 있거나 주님의 제단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한 다음 387년 8월 27일 56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어머니가 “자기를 두 번 낳아 주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부모들과 참다운 가정들이 교회의 너그러운 사제들과 목자들과 삶을 함께한 사례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성인 가정 출신입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사셨던 분들로는 루이지 벨트라메 콰트로키와 마리아 코르시니 부부가 생각납니다.
이 분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 사신 분들로 존경하는 제 선임자이신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교황 교서 「가정 공동체」 20 주년에 맞춰 2001년 10월에 시복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결혼의 가치와

가정의 임무를 설명해 주며, 그 외에도 부부들에게 혼인 성사에서 은총과 힘을 얻어 일생 동안 특히 성덕의 길을 걸어 가도록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56 항 참조) 부부가 자녀들을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을 찾아내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면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헌신할 때에, 이들은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가 생겨나 성숙하는 비옥한 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동정 생활이 얼마나 긴밀히 연

결되어 있는지 보여 주고 결혼과 동정 생활이 그리스도의 배필로서의 사랑에 함께 뿌리내리고 있음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밝게 빛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제의 해인 올 해에 “아르스의 성자[성 요한 비안네]의 전구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 성령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과 모든 은사를 기꺼이 받아 들여 잘 활용하도록”(사제의 해 기도문)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함께 간청을 드리는 동정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얻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음악의 선각자 최양업 신부께 바치는 음악회

이 땅에 하나님의 음악회를 노래하다

올해는 두 번째 한국인 사제 최양업 신부의 서품 1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사제의 해입니다.

박해의 탄압이 멈추지 않던 시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목자의 사랑만으로
한 해에 7천리를 숨어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 ‘길 위의 사제’ 최양업 신부의 열정적인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와 124위 순교자’가 시복시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음악회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재독 음악가 박영희 교수가 새롭게 지은 최양업 신부를 위한 작품이 초연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10월 14일 (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 프로그램

- 최양업신부님의 생애 /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 차기진박사
- 천주가사 고전재현 연주- ‘사향가’ 중에서 한 대목 - 박기석
- 오르간 연주/ 리스트 ‘순례자의 합창’ - 강석희
- 합창 / 박영희 ‘주님,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세계초연)
/ 이문근 ‘떼 데움’ 아퀴나스 합창단 / 지휘 신재상
- 오르간 연주 / 박영희 ‘별빛 아래’ - 채문경
- 솔로 / 나운영 ‘주님은 나의 목자’
/ 김두완 ‘어지신 목자’ - 바리톤 최승태
- 국악 합창 / - 우리맥소리합창단/ 지휘 최지애

◇ 주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후원: 가톨릭신문, 베티성지, 서울대교구 반포4동성당,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 청주교구 연수동성당, 평화방송 · 평화신문

◇ 문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무국 ☎ 02) 777-2013, 757-7851

※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작곡 공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과 작곡을 공모합니다.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를 창작하고 육성하여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도록하기 위한 우리성가 창작공모에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노랫말 공모

◆ 응모기간 : 2009년 7월 ~ 10월 31일

◆ 노랫말 내용 :

- ① 사제의 해를 지내며 사제들을 위해 부를 수 있는 내용
- ② 성경과 전례서를 근거로 하며, 신앙적 영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
- ③ 일정한 운율을 갖추어 작곡하기 쉬우며 2~3 절까지 부를 수 있는 길이

◆ 응모자격 :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와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 상패와 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 / 상패와 상금 30만원

◆ 접수 : 홈페이지 www.clak.or.kr > 응모게시판 (접수는 응모게시판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 작곡 공모

◆ 응모기간 : 2009년 12월 01일 ~ 2010년 3월 31일

◆ 당선작 발표 : 2010년 5월 중 발표

◆ 작품 :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선정된 노랫말 중 자유로이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의 합창곡으로 신자들 또는 성가대를 위한 곡으로 작곡하되, 무반주 합창곡은 3성부 이상으로 작곡할 것.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반주녹음(MP3)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시상 -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 선정된 노랫말을 바탕으로 창작곡 공모를 갖게 되며, 당선작은 내년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때 지정곡으로 연주됩니다.

2009년도(제26회)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숨어있는 가톨릭대상의 주인공을 찾아주십시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2009년도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한국평협은 세상 속에서 삶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온 숨은 인사를 찾아 ▲사랑 ▲정의평화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가톨릭대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시상하고 있는 가톨릭대상은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에 이 바지한 모범적 시민에게 시상함으로써 인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작은 그리스도', '숨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대상은 가톨릭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 삶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과 정의평화 실현, 문화창달에 노력해온 평신도와 일반 시민들 중에서 널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3개 부문
- 대상 : 종파를 초월한 55세 이상으로 개인
- 추천방식 : 소정의 추천양식 또는 일반적인
- 마감 : 2009년 10월 31일
- 시상일 : 2009년 12월중
- 상금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각 부문 대상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

TEL)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홈페이지 : <http://clak.or.kr>

이메일 : clak@catholic.or.kr

